

# 소비자가 인지하는 제품사용 및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 자원활용 측면의 소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

## Consumer's Perceived Product Usage and Disposition

- Focusing on Efficiency of Consumption based on Resource Utilization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朴明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 Myung Hee, Park*

시립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생활학과

조교수: 俞惠卿

*Dept. of Textiles & Clothing*

*University of Incheon*

*Assistant Prof.: Hae Kyung, L. Yu*

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朴明淑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ssistant Prof.: Myung Sook, Park*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朴美惠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Mi Hae, Park*

본 연구의 목적은 (1) 가정에서의 소비행동을 자원활용적 측면에서 탐색해 봄으로써 소비의 사용/처분 효율성 개념을 제품군 별로 명료화 하고 (2) 사용/처분 효율성과 인구통계적 특성,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와의 차이를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400명이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수는 357부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처분 효율성 개념은 상품군(식품, 의류, 가전제품)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처분 효율성과 몇몇 인구통계적 변수와는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 환경보전 태도는 사용 효율성과 정적관계를 보여 주었으나 처분효율성과는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 교육 및 재활용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사회의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소비행동(획득, 사용, 처분을 모두 소비행동으로 볼 때)이 환경오염 및 자원활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환경문제는 대량소비사회에서 기인 하는 것이며 문제의 해결도 소비자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구매, 사용, 처분하는 소비행동 즉 효율적 소비행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 소유와 편리함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소비자의 구매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온 반면, 효율적인 소비와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아주 희소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물질적 소유와 편리함에 대한 무분별한 사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소비관행이 지나치게 자원낭비로 흐르게 되었으며 그중에도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음식물, 의복, 가전제품의 사용이나 처분활동에 있어서 비효율적 요소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소비행동을 자원 활용적 측면에서 탐색해 봄으로써 소비의 효율성개념을 제품군별로 명료화 하고, 소비자 특성변수(주거형태, 인구통계적 변수, 환경보전 의식)에 따른 제품군별 소비효율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문제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의 관점에서 소비의 효율성을 사용과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음식물, 의류(아동복과 성인복), 가전제품(가사노동 절약제품인 세탁기와 가정오락 관련 제품인 비디오) 등에 한정시켜서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진행을 위해 사전조사를 한 결과(15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소비자 자신이 인지한 사용/처분 효율성' 정도와 '실제 행동에서의 사용/처분 효율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되었다. 이에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관한 소비의 효율성 연구는 '소비자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효율성'과 '실제의 효율적행동'을 병행하여 조사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평가방법을 이용한 "인지하고 있는 효율성"을, 연구 II에서는 실제행동을 측정하여 효율성 여부를 평가한 "실제 행동에서의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 '인지하고 있는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본 논문의 <연구문제 1>은 연구 II를 진행하기 위한 개념화 작업으로서 이의 사용결과는 연구 II인 "소비자의 제품사용 및 처분

행동에 관한 연구 II"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환경보전 차원에서 제품의 사용 및 처분효율성의 측정방법을 탐색해 본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제품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인지된 효율성은 어떠한가?

가설 2-1: 인구통계적 변수(연령, 학력, 소득, 직업, 종교, 가족수, 주거형태)에 따라 제품의 인지된 사용효율성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제품의 인지된 처분효율성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환경보전의식과 제품사용 및 처분에 대한 인지된 효율성은 관계가 있는가?

가설 3-1: 환경보전의식과 제품의 인지된 사용효율성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환경보전의식과 제품의 인지된 처분효율성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비의 구성 개념

Kyrk은(1984, 45~50) '소비이론'이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소비수준(levels)과 소비표준(standards)의 개념을 정립했는데 그는 소비란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바람, 목적, 활동, 관심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는 주거, 의류, 식품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개인의 성향이나, 관심, 욕구등에 의해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낸 생활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므로써 소비수준과 생활수준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Kyrk의 생각을 근거로 소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다면 인간은 생리적으로 충족시켜야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심리적 사회적으로 충족시켜야하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소비란 이러한 인간의 욕구가 표면으로 표출되어 시각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Hyor(1984, 45~50)는 생활과 복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분야의 생활표준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organic whole)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어떤 분야의 증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조직체의 변화에 의해서 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Hyot에 의하면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수준 향상은 총 소비의 증가 없이, 가족의 가치나 목표와 밀접하게 반응하여 구성요인의 균형을 갖춘 소비패턴의 변화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Hyot의 생각은 Blackwell, Engel, Talarzyk (1985) 등이 제시한 질적 소비(quality consumption)에 대한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Blackwell 등은 산업시대 소비자들의 주된 관심은 물질적 빈곤으로 부터의 탈피 즉 풍요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는데 반하여 과도기에서 후기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상품의 질, 환경의 질, 생활의 질에 대한 열망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질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소비자들의 말을 수록 좋다는 과거의 사고에서 양적으로는 적다하더라도 질적인 소비가 더 바람직스럽다는 사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박명숙, 1990). 이러한 질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경보호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양적 추구보다는 오히려 질적 추구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면에서는 질적 변화는 물론 양적팽창까지도 추구하는 과소비가 행해지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소비 문제를 환경문제와 자원활용 측면에서 볼 때 무절제한 소비행위는 지나치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제품의 효율적 사용 및 처분활동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져다 주므로써 최근 문제시되는 자원 재활용문제라든가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소비행위가 단순히 소비자의 소득과 시장가격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속에 내재하는 가치, 규범, 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간욕구를 환경보호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는 개인의 욕구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행동을 할 때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환경오염 여부가 포함된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 결과는 기업에 피

드백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학문영역 뿐만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 및 관심분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념구성면에서 보면, 소비활동의 개념적 구성요인을 과거에는 구매활동과 사용활동 두 영역으로만 보아왔다(Burk, 1967; Engel, Kollat, Blackwell, 1973; Howard, Sheth, 1969; Hansen, 1972). 그러나 Hanson(1976), Holbrook(1987) 등은 구매활동, 사용활동과 더불어 처분활동도 소비활동의 구성요인에 포함시키므로써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Jacoby는 구매활동을 습득활동(acquisition activities)으로 표현해야됨을 주장하고, 구매는 화폐의 교환과 관련되지만 습득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용과 처분활동에서도 어떤 품목에 대해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겨둘 것인가, 버릴 것인가 남을 줄 것인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수반됨을 제시하였다(Jacoby, 1~11).

본 연구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는 구매행동 못지않게 소비자의 사용, 처분행동이 중요함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어서 소비영역중에서 제품의 사용 및 처분행동을 자원활용 측면의 소비의 효율성을 중심으로해서 살펴보고자한다.

## 2. 자원 활용측면에서의 소비의 효율성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경제학 이론에서의 투입-산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효율성 측정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시장활동에서 "받은 것"과 "준 것"에 대한 상충관계를 분석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댓가는 화폐(monetary price) 외에도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되는데(Zeithmal, 1988, 2~22) 투입요인이 다차원적일 경우는 각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인 등급을 정해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행해진 효율성 연구는(박명희 · 박명숙, 1992; Sproles 등 1978,

1980)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요인의 대체관계인 가격에 따른 구매이득과의 관계만을 평가하므로써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 선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에 관심을 보여왔다.

소비자 행동은 구매행동 못지않게 사용, 처분 행동이 중요함에도 자원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용, 처분 효율성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사용 및 처분 행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바 있으나(강이주·박명희, 1989; 정주원, 1993) 이를 소비 효율성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 연구는 없다.

사용행동을 구매이외의 목적지향적 활동으로(Nicosia, 1974), 처분행동을 제품을 통한 욕구를 충족시킨 후의 처리활동이라고 할 때(Burke등, 321~326) '사용 효율성'은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을 사용가능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처분 효율성'은 제품의 원초적 목적 기능이 남아 있음에도 처분되었거나 또는 원초적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보관 내지 유지 하고 있을 경우는 비용이 들게 되므로 비 효율적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만일 제품이 원초적 목적 사용으로는 기능을 다 했더라도 다른 기능으로 변용시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제품을 새로운 기능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분이 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용/처분효율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 초점을 둔 효율성개념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심리적 기준은 효율성 평가 기준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척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작성한 설문지이며 척도구성을 위해 2회에 걸친 기초조사('93년 12월 17일~21일, 94년 1월 5일~7일)와 예비조사를('94년 1월 25일~28일) 실시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몇차례에 걸친 회의의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척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지된 사용효율성

식품, 의류, 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용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제품당 5문항씩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 수록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값은 식품사용효율성은 .8334, 의복사용효율성은 .6563, 가전제품의 사용효율성은 .8253으로 나타났다.

#### 2) 환경보전 의식

선행연구(서정희, 1986; 정주원, 1993)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값은 .9283으로 나타났다.

#### 3) 인지된 처분효율성

처분효율성은 처분이유와 처분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처분이유의 유형은 Hanson(1976), 노영화·강성진(1991)의 연구를, 처분방법의 유형은 강이주(1989), 노영화·강성진(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가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활용 측면에서의 소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이유가 원초적 기능이 모두 사용되었거나 기능상의 결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경우는 효율적 처분으로,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나 유행, 디자인이나 기타의 이유등으로 마음에 맞지 않아 처분 하는 경우는 비효율적 처분으로 평가하였다. 처분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기증하는 경우는 효율적으로, 집에 그냥 두거나 버리는 경우는 비효율적으로 평가하였다.

#### 2. 표본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논문 연구문제 1의 탐색을 위하여 선정된 15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사용및 처분행동의 개념및 측정의 방법을 탐색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의 분석을 위해 사용및 처분의 인지된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집으로서 표집대상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주부)로, '94년 3월 28일 부터 4월 8일 까지 4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357부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T-검증, 일원분산분석, 다원분산분석,  $\chi^2$  검증을 사용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연령은 20대가 9.7%, 30대 26.7%, 40대 37.2%, 50대이상인 25.3%이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5.4%, 고졸이 48.9%, 대졸이상이 35.0%이며, 소득수준은 50만원 이하가 1.4%, 50~100만원 13.9%, 101~150만원 28.6%, 151~200만원 29.2%, 201~250만원 15.6%, 250만원 이상 10%이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76.8%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32.9%이며 단독주택 거주자는 32.8%, 공동주택 거주자는 66.1%이다. 가족수가 1~3인인 경우는 23.1%이고 4인인 경우는 36.9%, 5인이상은 38.9%를 보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환경보전 차원에서 소비의 효율성 측정방법의 탐색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차원에서 소비효율성은 제품의 사용 및 처분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주부를 대상으로한 심층면접과 2차에 걸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 제품에 대한 측정방법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식 품

구입한 식품을 어떤 이유에서건(관리상의 소홀로 음식이 상했거나, 단순히 먹기 싫다거나 등)버리는

경우는 그 정도 만큼이나 비효율적 소비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1).

자원활용 측면으로 볼 때 음식물의 사용 및 처분 활동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수록 효율성 정도(사용효율성/처분효율성)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 경우 사용효율성과 처분 효율성은 연속체적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효율성의 측정 기준은 식품에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량화 할 수 있다. 즉 각 음식물에 투입한 총비용중 음식물 재료상태에서 버린 양의 비용과 조리된 상태에서 버린 양의 비용을 합산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제외한 값에 대한 총비용의 비율을 사용 효율성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a, b와 같다.

- a. 식품의 사용효율성 = 1 - (조리식품 버린 액 + 재료 버린 액) / 총비용.
- b. 식품의 처분 효율성 = 1 - 식품의 사용효율성.

#### 2) 의 류

의류제품의 사용 효율성은 의복 착용시 비용적으로 저렴한 경우와 보유한 의복의 착용정도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비용면의 효율성은 각 의복의 1회 착용비용의 총합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옷의 총비용 비율을 사용효율성으로 보고 이를 비용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a와 같으며 착용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식 b와 같다.

- a. 사용효율성 =  $\frac{\sum_{i=1}^n \text{각 의복의 구매비용}}{\sum_{i=1}^n \text{1회 착용 횟수}}$   
(비용측면)   
 (i의 1회 착용 비용 = i의 구매비용 / i의 착용 횟수)
- b. 사용효율성 =  $\frac{\sum_{i=1}^n \text{착용회수}}{\text{총 보유수}}$  이다.  
(착용측면)  
 \*n=옷의 총 수, i=옷의 각 품목

#### 3)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기능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시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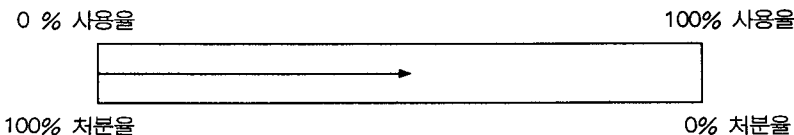


그림 1. 사용효율성과 처분효율성과의 관계.

사용비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가전제품에는 다양한 기능이 부착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기능사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식으로 나타내면

$$a. \text{사용효율성} = \frac{\sum_{i=1}^n \text{사용 기능수}}{\text{전체 기능수}}$$

\*n=사용기간, i=사용 횟수

b. 비용효율성 = 사용량/구입 비용 이라고 할 수 있다.

$$(\text{사용량} = \text{사용횟수} * \text{사용시간})$$

#### 4) 처분효율성

처분효율성은 식품의 경우 100% 사용이 곧 0% 처분을 의미하나 의류, 가전제품의 경우는 식품과는 달리 100% 사용이 곧 0%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처분효율성을 하나의 연속체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용/처분행동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행동에 있어서의 효율성/비효율성, 처분행동에 있어서의 효율성/비효율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야만 한다. 의류와 가전제품에 있어서 처분효율성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기능이 상실 되어서 처분행동을 할 경우를 효율적으로, 원초적 기능이 남아있음에도 처분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음에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를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였다.

### 2. 인구통계적 변수와 인지된 제품사용 및 처분 효율성과의 관계

인구통계적 변수와 인지된 제품의 사용효율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가전제품의 사용효율성만이 연령, 교육수준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1). 연령과 가전제품의 인지된 사용효율성과의 관계는 30대가 높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전제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젊은 층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기능의 유무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므로 사용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능 사용을 모르거나, 혹은 기능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시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품선택이 이루어지므로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학력이 높을 수록 인지된 사용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므로써 효율적 자원 사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인구통계적 변수와 제품의 처분이유와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처분이유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소득수준을 통제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외출복에 대한 인지된 처분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자들의 처분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 평상복의 처분이유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도 외출복처분이유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아동복의 처분이유는 연령이 많을 수록, 공동주택 거주자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50대 이상의 경우는 전후세대로서 자원절약이 몸에 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자원활용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전제품의 처분이유는 비디오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는 기능상실이 되지

표 1. 인구통계적 변수와 인지된 가전제품의 사용효율성과의 관계

변 수	집 단	평 균	F 값	Duncan 검증	유의수준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2909	3.97	1 2 3	p<.01
	고졸	15.8046		1	
	대졸 이상	17.4762		2 3 * *	
연 령	20대	16.7714	3.79	1 2 3 4	p<.05
	30대	17.0417		1	
	40대	16.1343		2 * *	
	50대 이상	15.5165		3 4	

않는 제품을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효과때문으로 추측된다. 세탁기와 종교와의 관계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처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처분방법과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관계는 의류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표 3).

의류의 처분방법은 성인 외출복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이, 가족수가 4인인 집단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처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종교가 하나의 조직력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주거형태와의 관계에서도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부녀회와 같은 조직체의 활성화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효율적 처분을 위해서는 주거단위나 지역단위로서 처분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일반 조직체를 형성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성인평상복의 경우 종교, 가족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외출복의 처분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고, 가족수와와의 관계는 가족수가 많을 수록 안입는 옷을

그냥두는 비율이 높으므로써 비효율적 처분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아동복의 처분방법은 가족수가 적을수록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처분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환경보전의식과 인지된 제품사용 및 처분 효율성과의 관계

환경보전의식과 인지된 제품의 사용효율성과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에 상관 없이 환경보전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환경보전의식과 제품의 처분효율성 관계를 보기 위해서 환경보전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평상복의 처분이유와 외출복의 처분방법에 한해서만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환경보전의식이 낮은 집단이 처분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따라서 소비자교육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 개발이

표 2. 인구통계적 변수와 제품의 처분이유와의 관계

구 분	연 령	교육수준	가족수	직 업	소 득	종 교	주거형태
의 류	성인외출복	n.s	$\chi=21.87^{***}$	n.s	n.s	n.s	n.s
	성인평상복	n.s	$\chi=9.495^*$	n.s	n.s	n.s	n.s
	청소년/아동복	$\chi=16.15^{**}$	n.s	n.s	n.s	n.s	$\chi=9.61^{**}$
가전 제품	비 디 오	n.s	n.s	n.s	$\chi=8.37^*$	n.s	n.s
	세 탁 기	n.s	n.s	n.s	n.s	$\chi=11.20^*$	n.s

\*\*\*p<.001    \*\*p<.01    \*p<.05

표 3. 인구통계적 변수와 제품의 처분방법과의 관계

구 분	연 령	교육수준	가족수	직 업	소 득	종 교	주거형태
의 류	성인외출복	n.s	$\chi=28.069^{***}$	$\chi=17.60^{**}$	n.s	n.s	$\chi=10.31^{**}$
	성인평상복	n.s	n.s	$\chi=11.99^*$	n.s	n.s	$\chi=10.01^{**}$
	청소년/아동복	n.s	n.s	$\chi=8.370^{**}$	n.s	n.s	n.s

\*\*\*p<.001    \*\*p<.01    \*p<.05

표 4. 환경보전의식과 제품 사용효율성과의 관계

구 분	사용효율성	의 류 의 사용효율성	식 품 의 사용효율성	가전제품의 사용효율성
환경보전의식	.3549***	.3178***	.2903***	.1522***

\*\*\*p<.001

표 5. 환경보전의식과 제품의 처분효율성과의 관계

구 분	환경보전의식
평상복 처분이유	$\chi^2=10.09^{**}$
외출복 처분방법	$\chi^2=9.30^{**}$

\*\*p<.01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원활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제 소비자 행동을 보고 효율성을 실측하기 위한 측정방법 탐색, 그리고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용 및 처분 효율성과 영향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자원활용 측면에서의 소비의 효율성은 사용효율성, 처분효율성으로 분리하여 설명될 수 있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 제품특성에 따라 측정방법이 다르게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는 사용비용을 중심으로한 효율성 측정 방법과 사용빈도를 중심으로한 측정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수와 인지된 제품의 사용효율성과의 관계는 가전제품의 경우에만 연령, 교육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지된 처분효율성과의 관계는 처분이유에서는 성인 외출복과 평상복인 경우는 교육수준과, 청소년/아동복인 경우는 연령과 주거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전제품은 비디오의 경우 직업 유무, 세탁기인 경우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처분방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는 성인 외출복인 경우는 교육수준,가족수 주거유형에 따라, 평상복인 경우 종교와 가족수, 청소년/아동복인 경우는 가족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비의 효율성과 연령,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볼 때 인지된 사용효율성은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인지된 처분효율성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수와 인지된 제품의 효율성과의 관계는 가전제품의 경우는 사용효율성과, 의류인 경우는 처분효율성과 관계를 보이므로써 제품에 따라 영향 변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세제, 환경보전의식과 인지된 사용효율성과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처분효율성과는 평상복 처분이유와 외출복 처분 방법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때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용과 처분의 효율성은 개념 자체가 분리된 개념으로 행동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보전 및 제품의 재활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용행동과 처분행동은 두가지 측면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 면만 행해져서는 소비의 효율성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서로 연계성 있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문제를 들 수 있는데 결과에서 제시 했듯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종교가 있고, 공동주택 거주자가 처분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처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활동이 중요함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처분할 수 있는 상설화된 기구가 조직적으로 마련되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묵혀두거나 혹은 버림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강이주(1989).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박명숙(1990). 소비자 효율성에 대한 개념 및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9권, 425-443.
- 3) 박명희·박명숙(1992). 소비자효율성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3(1), 16-30.
- 4)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정주원(1993).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Blackwell, R.D., Engel, J.F., Talarzyk, W.W.(1985). Contemporary Cases in Consumer Behavior. The Dryden Press, 365-373.
- 7) Burke, M., W.D. Conn, R.J. Lutz(1978). Using psychographic variables to investigate product disposition behavior. Proceedings, Educator Conference, AMA, 321-326.
- 8) Engel J.F.(1973). Kollat Blackwell, Consumer Behavior, The Dryden Press.
- 9) Frances Magrabi(1909-1984). Establishment of Family Economics as a Conceptual Field. Definitive Themes in Home Economics and their impact on Families, 45-50.
- 10) Hansen, F.(1972). Consumer Choice Behavior : A Cognitive Theory. New York, Free Press.
- 11) Hanson, J.W.(1976).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es. *J.C.A.* 10, 49-67.
- 12) Holbrook, M.B.(1987). What is Consumer Research ? *JCR* 14,128-132.
- 13) Jacoby, J.(1976). Presidential Address Consumer research : Telling it like it is. 1-11, *ACR* 13.
- 14) Sproles, G.B., L.V. Geistfeld, S.B. Badenhop(1980). Types and amounts of information used by efficient consumers. *J.C.A.* 14, 37-48.
- 15) Sproles, G.B.(1980).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of Consumer Efficiency. *ACR* 3, 178-179.
- 16) Zeithmal, V.A.(198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52, 2-22.